



##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 다함께  
대표기도 .....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 김영란 목사  
광고 .....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인도자  
설교 .....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시 50: 23)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 ..... 다함께  
축도 .....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http://hkb.church)

## “화평을 이루는 자의 축복” (마태복음 5:9)

본문 9 절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평화,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분열, 싸움, 다툼, 미워함, 비난, 대립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사단의 자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구원 받아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거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화목케 하고, 평화와 화평을 이루어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18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된, 원수 되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섬기는 자로, 십자가를 지는 자로 낮아 지셨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희생하고 자신의 뜻, 원함, 이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양보함, 참아줌, 포용함, 내려놓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상대방의 원함대로 따라 주고 순종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와 내 생각이 다를 때, 의견이 다를 때, 원함이 다를 때 사단의 방법대로, 죄성을 따라 고집스럽고 가시 듯한 말과 태도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 화목과 화평의 삶을 위한 용서, 용납, 배려, 양보함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평화를 이루는, 화목케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힘써 기도와 말씀의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 교회소식

###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2. 추수 감사예배 -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후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3. 2022년 목장 - 2022년 새해 새로이 목장을 재편성

하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11/21	11/28	12/05	12/12
대표기도	김영란	이화선	유경주	고현명
헌화성도			구정자	이은진
봉사당번	등지목장	살롬목장	나눔목장	따스한목장

##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1,461.44	

## 행사 및 모임

11 월	추수감사예배	11 월 21 일 (주일)
12 월	성탄축하예배	12 월 19 일 (주일)
	송구영신예배	12 월 31 일 (금)

## 목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소망목장	1 월 22 일	이진수	17	교 회
믿음목장	2 월 23 일	교 회	7	교 회
나눔목장	2 월 23 일	유영민	6	심영민
섬김목장	3 월 05 일	이진수	8	이진수
은혜목장	2 월 09 일	정명희	7	윤완선
신바람목장	1 월 11 일	이진수	6	손다니엘
둥지목장	2 월 02 일	이인호	5	오상균
따스한목장	1 월 11 일	김인수	7	서영희
살롬목장	2 월 21 일	조정욱	7	김창용

\*목장모임은 각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소망목장	정병철	510, 415-4156	선교사 (Malaysia)
믿음목장	박종철/박승자	510. 909-8612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은혜목장	윤완선/윤선예	510. 340-1014	나순규 (Indonesia)
신바람목장	유경주	010 6427-2431	박완주/헝가리집시
둥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살롬목장	조현숙/조정욱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b>TEE 성경공부-12 주</b>	12 주

## 믿음의 감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에 도착하여 첫 추수 한 것을 감사하여 도움을 준 원주민들을 초대하여 함께 감사를 표하고 함께 식사하며 기쁨을 나눈 것을 기념하여 제정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게 된 과정은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함께 출발했던 146 명이 117 일간의 길고 험난한 항해를 했습니다. 항해 끝에 도착한 미국 동부 플리머스에 추운 겨울인 12 월 26 일에 도착했지만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전염병까지 돌아 이듬해 봄이 되기전에 44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영국에서 가져온 보리와 밀은 토양이 달라 그해 첫 농사는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에게 선한 원주민들의 몇 종류의 씨앗과 함께 재배기술도 알려줌으로 그해 처음으로 낫선 신대륙에서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첫 수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도와 준 인디안 원주민 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와 기쁨을 나눈 것이 바로 추수 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일곱가지의 감사의 이유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일곱가지 청교도들의 감사의 제목들이 이것입니다. 1. 180 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평균 시속 2 마일로 항해했으나 117 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3. 항해 중 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4.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배가 부서지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5. 일행 중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무사히 구출됨에 감사합니다. 6.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됨에 감사합니다. 7. 3 개월 반 동안의 고통스런 항해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청교도들의 감사는 배고픔, 질병, 죽음 등 열악한 환경에서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사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인디언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추수 감사절의 의미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린 날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도 참된 감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 예배및모임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0 시 30 분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영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주일성경공부	주일오후 1 시	유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 시	본당
목장모임	매 주	목장별각가정

##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Edison&Danielle	408-807-7962	edisontung@gmail.com
어린이교회: 이은진	510-415-1696	ejoysong@gmail.com
안수집사: 윤완선		
섬김목장:이진수목사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믿음목장: 박종철목자
나눔목장:유영민목자	따스한목장:김영란목자	은혜목장: 윤완선목자
둥지목장:이화선목자	샬롬목장: 조현숙목자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자

## 교회약도

